

April 28 종교는 무겁고, 관계는 가볍다

• 마태복음 11:28-30

종교는 무겁고, 관계는 가볍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조사하는 비밀경찰이나 CCTV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각종 '종교적 제도'와 의무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규칙과 고행, 법조문에 얹매여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선하심과 생명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 빛이 반사되어 내 삶과 주변 모두에게 비칩니다(마 5:14-16). 어느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보름달이 되어 주변을 환히 비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명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명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땡니다. 어미 소와 아기 소가 함께 명예를 매면 균형이 잘 안 맞겠지요. 누구의 명예가 더 무거울까요? 어미 소의 명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매면 우리 명예는 가볍게 됩니다. 예수님의 최선과 최상의 길로 이끄시니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을 대비하고 개척해야 하는 부담과 근심, 걱정과 염려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져야 할 명예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내비게이션도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도자이실 뿐 아니라 '길' 자체이십니다(요 14:6).

나는 예수님의 주시는
명예를 매고 있습니까?

- ❶ 예수님과 함께입니까, 아니면 나 홀로 명예를 매고 있습니까?
- ❷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